

‘걷고 싶은 충장으로 만들기’ 포기했나



광주 동구 27억원 들인 보도블록 뜯어내고 5억 들여 아스콘 포장 상인 반발에 차량 통행 제한 못하고 매년 도로 보수로 혈세 낭비



판석형 보도블록이 깨지고 빠져 시멘트로 보기 흉하게 메꾼 황금로 패션거리(위)와 아스콘 포장을 하고 있는 충장로.

광주시 동구 충장로에 도로 포장공사가 한창이다. 27억원이나 들여 바닥에 간 판석(板石)형 보도블록을 뜯어낸 자리에 5억원을 들여 아스콘 스탬프포장으로 변경하는 공사이다.

차량통행 등으로 판석형 보도블록이 깨져 유지보수가 힘들다는 점의 공사의 이유인데, 차량 통행 등의 근본적 원인은 해결하지 않고 도로포장만 바꾼 채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에 문화중심도시의 중심인 충장로에 확고한 정책 기준 없이 상가들의 눈치보기만 보다 보행자보다는 자동차에게 거리를 내주고, 도로포장에 또 다시 혈세를 낭비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충장로는 금남로와 함께 문화전당을 중심으로 하는 구 도심 문화관광권역일 뿐만 아니라 옛 전남도청(문화전당)·옛 가톨릭센터·전일빌딩과 연결되는 5·18역사문화 구간이라는 점에서, ‘보행자 전용 구간의 거리’ 조성이 중요하다는 각계의 요구가 있었다. 하지만 동구는 상인들의 잦은 주정차 등으로 고급 보도블록이 자주 파손되자 아예 파손 우려가 없는 아스콘 포장을 하기로 했으며, 이로 인해 충장로는 좁은 도로에 차량과 사람이 섞이는 혼잡상을 연출할 수밖에 없게 됐다.

12일 광주 동구에 따르면 다음달 20일까지 동구는 아시아 문화전당 주변 도로 정비의 일환으로 ‘걷고 싶은 충장로 가꾸기 사업’을 시비 5억원을 들여 충장로 1~3가 일대에 458m에 도로 포장과 교차로를 변경한다.

광주와 동구는 그동안 동구내 충장로 1~3가(2007년, 747m), 충장로 4-5가(2009년 590m), 황금로 패션거리(2008년, 384m), 예술의거리(2012년, 295m) 등 4곳에 특화거리 조성 사업 등의 일환으로 판석형 보도블록 사업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 공사구간인 충장로 1~3가는 지난 2006년부터 2007년 ‘명품거리 조성’을 한다는 목적으로 광주시가 27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화강석 보도블록(가로·세로 5×5cm, 10×20cm, 20×20cm 등 3종류) 조성 공사를 했었다.

취지는 좋았다. 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해 문화도시의 한 축으로서 충장로·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침체된 옛 도심 상권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존 판석형 보도블록 포장은 충장로 내 잦은 차량 통행 때문에 파손이 빈번해 물웅덩이들이 생기고, 보행자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었다. 보수에도 매년 1억여원에 가까운 예산이 들었다.

이에 동구는 우선적으로 충장로 1~3가의 판석형 보도블록을 제거하고 아스콘을 포장하고, 그위에 가로·세로 20cm 크기의 판석 모양의 도장을 찍어 형태를 만들어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겠다는 계산이다.

문제는 ‘걷고 싶은 거리’가 되려면 매일 시도 때도 없는 상가 차량과 시민 차량들의 충장로 통행, 불법 주정차 난립을 막아야 했지만, 상인들의 반발 탓에 이를 포기한 듯하다.

이 때문에 충장로 거리는 사람의 보행보다는 자동차 통행이 우선시 된 지 오래이

다. 평일 낮에도 충장로를 횡단하는 자동차는 하루에도 수십대에 달하고, 거리 곳곳의 불법 주정차도 일상이 됐다.

광주일보가 지난 9일~12일까지 낮 시간대 30분 동안 판석형 보도블록이 깔려있는 충장로 일대를 취재한 결과, 이 도로를 무단 통행한 차량은 9일 12대, 10일 21대, 11일 19대, 12일 26대에 달했다. 무단 통행 차량이 30분에 평균 20대인 점을 감안하면 하루 수백 대가 차량이 충장로를 드나드는 셈이다. 일방통행임에도 불구하고 진입금지 방향에서 당당하게 들어오는 차량들도 있었다.

충장로 일대는 도로교통법상 차량 통행이 금지된 지역(밤 11시~다음날 오전 9시까지), 2미만 상품원반차량 제외)이지만 진입 차량에 대한 통행 제한이나 단속이 없는 탓에 유명무실하다.

저녁시간대가 되면 상황은 더 심각해진다. 곳곳에서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피해 걷는 사람들과 그 사이를 꿔뚫고 있는 오토바이가 어우러지면서 충장로는 짜증나는 거리로 변한다.

이같은 근본적인 문제는 모른척 한 채 동구는 판석형 보도블록을 설치할 때와 아스콘 포장을 할 때 모두 같은 취지로 사업을 벌여,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차량통행 금지구역의 빈번한 차량 통행을 문제의 주범으로 꼽으면서도 상가 민원을 우려한 ‘눈치보기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 문화계 인사들은 동구와 광주시의 기존 없는 소극적 행정이 ‘명품 거리’ 조성 취지를 흐리고, ‘상가 활성화’라는 목적도 차량 통행과 주정차로 방만객이 떠나는 거리가 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글·사진·정병호 기자 jusbh@

오늘의 날씨

해 뜨는 시각 06:03 해 지는 시각 19:04 달 뜨는 시각 --:-- 달 지는 시각 09:56

맑은 봄하늘

중국 상해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 영향으로 맑겠다.

광주	맑음	5/16	보성	맑음	2/15
목포	맑음	5/13	순천	맑음	5/18
여수	맑음	7/17	영광	맑음	3/13
나주	맑음	2/16	진도	맑음	5/12
완도	맑음	6/16	진주	맑음	4/18
구례	맑음	3/18	군산	맑음	3/15
강진	맑음	4/16	남원	맑음	3/17
해남	맑음	2/13	흑산도	맑음	7/13
장성	맑음	3/15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 (m)	풍향	파고 (m)
서해 남부	안바다	북서~북	0.5~1.5	북서~북	0.5~1.0
	면바다(북)	북서~북	1.0~2.0	북서~북	1.0~1.5
	면바다(남)	북서~북	1.0~2.5	북서~북	1.0~1.5
남해 서부	안바다	북서~북	1.0~2.5	북서~북	0.5~1.5
	면바다(서)	북서~북	1.5~2.5	북서~북	2.0~3.0
	면바다(동)	북서~북	2.0~4.0	북서~북	2.0~3.0

◇물때

		간조	만조
목포		11:04	06:04
		23:07	18:01
여수		06:38	00:34
		18:30	12:32

◇주간 날씨

14(화)	15(수)	16(목)	17(금)	18(토)	19(일)	20(월)
5/21	6/21	8/22	11/19	9/21	10/17	10/19

◇생활지수

	보통
	감기
	보통
	뇌졸중
	보통
	미세먼지

조선대, 코로나19 안정때까지 전 교과목 온라인 강의

조선대학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2020학년도 1학기 전 과목을 코로나19 안정 시까지 온라인(비대면) 강의로 진행한다. 앞서 조선대는 교육부의 권고에 따라 2020학년도 1학기 강의의 4월 17일까지 전면 온라인 강의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고, 중·고등학교에서도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조선대학교는 2020학년도 1학기 온라인 강의의 기간을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대면수업 전환 시 대면 수업 시작 2주 전에 공지할 예정이다. 단 실험·실습·실기 교과목은 5월

12일까지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이후 산 방지를 위해 2020학년도 1학기 전 과목을 코로나19 안정 시까지 온라인(비대면) 강의로 진행한다. 앞서 조선대는 교육부의 권고에 따라 2020학년도 1학기 강의의 4월 17일까지 전면 온라인 강의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고, 중·고등학교에서도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조선대학교는 2020학년도 1학기 온라인 강의의 기간을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대면수업 전환 시 대면 수업 시작 2주 전에 공지할 예정이다. 단 실험·실습·실기 교과목은 5월 12일까지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이후 산 방지를 위해 2020학년도 1학기 전 과목을 코로나19 안정 시까지 온라인(비대면) 강의로 진행한다. 앞서 조선대는 교육부의 권고에 따라 2020학년도 1학기 강의의 4월 17일까지 전면 온라인 강의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고, 중·고등학교에서도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조선대학교는 2020학년도 1학기 온라인 강의의 기간을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대면수업 전환 시 대면 수업 시작 2주 전에 공지할 예정이다. 단 실험·실습·실기 교과목은 5월

광주 서구, 정신건강 상담 코로나19 심리지원반 운영

광주 서구는 12일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불안·우울·스트레스 등을 호소하는 주민과 자가격리자들을 위한 심리지원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신건강 전문요원들로 구성된 심리지원반은 전화·대면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며, 전문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서구 마음건강주치의 7명의 전문적인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상담 희망자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062-350-4195)로 연락하면 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확바뀐 고3 입시전략 어떻게

광주교육청 동영상 보급 13~27일 학부모 전화상담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온라인 개학과 함께 원격수업이 진행되고 대학입시 일정도 순연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교육청이 기존과 다른 입시전략으로 고3 지도에 나서 주목된다.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바뀐 입시전략에 맞춘 고3 수험생 대입 전략 동영상 제작해 지난 10일 일선 학교에 보급했고, 고3 학부모 전화상담도 실시하기로 했다. 고3 수험생 대입 전략 동영상은 페널티의 방식으로 제작됐다. 온라인 개학

으로 고민이 많은 고3 수험생들을 위해 변경된 대입 일정과 대비 전략 등을 20분 분량으로 상세하게 담아냈다. 학부모 전화상담은 13일~27일까지 10일 동안(주말·공휴일 제외) 진행된다. 사전 신청을 통해 자녀의 진학설계에 대한 질문을 받아 전화상담에 나서게 하는 방식이다. 한편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개학이 지연되면서 고3의 수시모집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작성 마감일은 8월31일에서 9월16일로 16일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당초 11월19일에서 12월 3일로 2주일 연기됐다. 수시와 정시모집 원서접수 기간도 순연될 예정이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폐해 많은 교원 성과급제 폐지하라”

학벌없는 시민모임 재촉구

교육 관련 시민단체가 논란이 되고 있는 교원 성과급제 폐지를 재차 주장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원성과급 평가가 비교과 교사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무분별한 경쟁을 부추기는 등 폐해가 쌓이고 있다”며 제도 폐지를 촉구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교과 교사는 국어·도덕·사회·수학·과학 등을 가르치는 교사를, 비(非)교과 교사는 학교 현장에서 수업이 주된 업무가 아닌 보전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 등을 통칭한다. 올해 광주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급 지급지침에 따르면 교원 성과평가 등급은 3등급(S, A, B)으로 구분에 등급별

로 상여금을 지급하고 등급별 인원은 최고 등급인 S등급 30%, 중간등급 A등급 40%, 하위등급 B등급 30%로 각각 배정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교과와 비교과 사이에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광주지역 성과 평가에서 비교과는 S등급이 10.5%, A등급 27.2%, B등급 62.3%인 반면 교과 교사는 S등급 31.3%, A등급 40.5%, B등급 28.2%으로 비교과의 하위등급 비중이 매우 높다. 인권위 조사 결과 지난해 전국 17개 교육청 비교과 교사의 71.5%는 가장 낮은 B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교조와 교총 등 교원단체는 물론 시도 교육감협의회도 성과상여급 차등 지급 폐지를 요구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보성수목장

보성군 노동면 소재

수목장 * 자연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061)322-6183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